

同音形態衝突과 言語變化

李 鉉 奎

<목 차>	
1. 서 론	{-디}
2. 명사형어미{-(-으)ㅁ}과 접미사 {-(-으)ㅁ}	4. 종결어미 서술형{-(-ㄴ다)}와 의문형{-(-ㄴ다)}
3. 명사형어미{-(-디)}와 접속어미	3. 결 론

1. 서 론

언어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동음형태의 충돌로 말미암아 변화를 겪는 경우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동음어라고 해서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수의 동음어는 어느 말에서나 있는 것이며, 그 동음어들이 충돌을 회피하면서 共存하여 가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동음어 상호간에 충돌을 막을 수 있는 安全瓣(safeguard)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동음어간에는 그 관계에 따라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동음어충돌은 언어가 변화해 가는 永續的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동음어 발생의 원인에는 음운적 원인, 예컨대 영어의 queen과 quean이라는 두 단어는 古代영어에서는 [cwēn], [cwene]로 발음이 구별되어 있었는데 셰익스피어 시대의 발음은 [kwɪ:n] [kwɛɪn]이었다. 18세기에 와서 두 발음은 꼭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同音衝突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그중 하나는 없어져서 queen만 남게 된 것이다.” 이 같이 음운변화를 겪는 사이에 동음관계에 놓이게 되는 음운적 원인, 또 多義語가 가지고 있던 유연적인 의미가 그 뜻이 비대해져서 상호관련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두 의미는 서로 별개의 낱말로 인식되어 동음어가 되는 의미적인 원인, 그리고 외국어가 流入되면서 외래어와 동음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언어사에서 동음

1) 朴榮培(1981 : 29).

어 충돌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국어연구에서 동음어 충돌에 관한 연구는 이미 몇 편이 있으며, 또 그러한 연구들은 동음어 충돌에서 나타나는 원리들을 제시한 바도 있다. 抽象語와 具象語間에는 同音語衝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²⁾ 內包性이 豊富한 抽象語와 指示性이 豊富한 具象語가 衝突할 때에는 抽象語쪽에 變形을 가져오고 있다.³⁾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용빈도가 큰 어휘들보다 빈도가 적은 어휘들은 많은 형태상의 변동을 가져 온다.⁴⁾ 등의 원리를 밝혀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어 어휘들의 동음어 충돌을 다른 연구들로서 본 연구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휘요소가 아닌 문법요소(grammatical element)들이 동음형태 관계에 놓일 때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법요소들이 동음형태충돌의 관계로 나타날 때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밝혀 보고자 하며, 그리고 자료가 확실한 15세기 이후의 국어현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동음어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명사형어미{- (으)ㄴ}과 전성명사화접미사{- (으)ㄴ}, 명사형어기{-디}와 접속어기{-디}, 그리고 종결어미 서술형{-ㄴ다}와 의문형{-ㄴ다}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낱말이 아닌 문법요소에 해당하는 형태소들이므로 동음어라 하지 않고 동음형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명사형어미{- (으)ㄴ}과 접미사{- (으)ㄴ}

통시적으로 同音形態의 발생은 음운의 소실에서 많이 생겨나지만 하나의 형태소 소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15세기에 있어서 전성어미의 명사형과(이하 명사형이라고만 쓴다) 전성명사화접미사(이하 전성명사라 약칭함)는 형태구조상에서 상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1) ① 거름 거루미곤 마투시며 (月釋 2 : 57)

② 도훈法닷고물물하야 (釋 9 : 14)

③ 큰지비기울어든더위자보미맛당하니라 (杜初 22 : 46)

2) 李勝明(1970).

3) 金宗澤(1975 : 191).

4) 崔泰榮(1972).

- ㉞ 偏頗지수마心力을간대로부미니라 (六寶壇上 12)
- ㉟ 이솨염스며잇다아니홈업소미眞實入상비住호미니라 (南明序 1)

“거름, 닳끔, 더위자름, 지솨, 이솨”은 “걷다, 닳다, 더위잡다, 짓다, 이시다”가 「어간+(오/우)+口」의 구조에 의해서 용언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 (2) ㊸ 열본어르물하늘히구티시니 (龍 30)
- ㊹ 조흔씨심겨근도흔여름여루미 (月釋 1:12)
- ㊺ 三業기순을덕오매 (禪龜上 39)
- ㊻ 처설모츠물알리노니 (釋序 2)
- ㊼ 이바딜머구리라새운모솨을넌대(月千 108)

“어름, 여름, 기솨, 모츨, 새움”은 ‘얼다, 열다, 짓다, 모츨다, 새오다’에서 온 전성명사로 볼 수 있는데 「어간+(오/우)+口」의 구조에 의해서 전성명사화 되었다.

“오/우 : 오/우”의 대립은 관형어 구성에도 존재하였다. 즉 被限定辭가 限定辭에 對해서 主格의 자리에 서는 말일 때에는 「-(오/우)-」形을 사용하고 被限定辭가 限定辭에 對해서 目的格의 자리에 서는 말일 때에는 「-(오/우)-」形을 使用하게 된다.⁵⁾

이렇듯 삽입모음 ‘-오/우-’는 한낱 음소로서가 아니라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소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形態素 -o/u-는 16세기 동안에 완전히 消滅되고 말았다.⁶⁾ ‘-오/우-’가 소멸됨으로써 위에서 브인 구조적 차이가 변화되어 전성명사와 명사형간에는 형태상으로 구분이 없어진 것이다.

- (3) ㊽ 다근본갑플을알거늘(小謔 5:40)
- ㊾ 어키여겨습즐을닐위어(小謔 5:73)

‘갑플, 겨습즐’에서 ‘-오/우-’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15세기에 명확하게 빈별표기되었던 전성명사와 명사형간의 형태구조는 16세기에 이르러서 동음형태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의 ㉞은 ‘거름겨르미’ (2)의 ㉟은 ‘여름여르미’와 같이 동음형태가 될 것이다.

16세기에 일어난 ‘-오/우-’의 소멸은 이후 점차 확대되어 간다. 17세기

5) 허 응(1959, 1963).
6) 李基文(1961: 140).

4 嶺南語文學(第13輯)

에도 표기의 보수성에 따라 그 쓰임이 더러 남아 있기도 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명사형의 쓰임이 계속적으로 생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사형을 형성하는 구조상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오/우-’소멸 그 자체가 명사형의 기능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일단 내릴 수 있지만 그 변화로 갈미얏아 다른 형태구조와 동음형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꼭 주목되는 사실이며, 또한 그 동음형태간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착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동음형태관계에 놓이게 된 전성명사와 명사형간에는 사실상 충돌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형태어에 이르기까지 공존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명사형의 문법체계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형태소의 충돌현상의 유무 확인을 위해서 전성명사와 명사형의 특질을 구명하고 동질성과 이질성을 분석하면서 그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조사해 보기로 한다.

먼저 그 동질성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용언을 어근 또는 어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낱말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거름(釋 6 : 17), 여름(龍 2)이나, 거름(月釋 2 : 57), 여름(月釋 1 : 12)은 모두 동사 걸다(步), 열다(結實)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같은 어근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면서도 서로 다른 범주로 나뉘어진 동음형태이다.

둘째는 명사의 기능을 다 같이 수행한다. 그래서 조사를 취해서 명사로, 또는 명사처럼 쓰이게 된다.

- (4) ㉠ 다질을호되 (東國新孝 30)
 ㉡ 우소를잡안호미라 (家諺 9 : 37)
 ㉢ 어르미서늘호물내는다 (杜初 7 : 23)
 ㉣ 너추렛여르미니 (月釋 1 : 43)
 ㉤ 물의도쿠즐으란 (馬好歹) (老下 15)
- (5) ㉦ 술마심을근치아니호거늘 (東國新 2 : 11)
 ㉧ 쥬특이네기문아논얏피니 (捷解 1 : 7)
 ㉨ 오미뉘고가미뉘은거슨과연스나회라 (三譯 2 : 1)
 ㉩ 나뉘넉디미더덕도다 (百聯 23)
 ㉪ 조척질우미 마장어렴도다 (법林上 57)

(4)의 ㉠~㉤에서 ‘다질, 우소, 어름, 여름, 도쿠즐’은 모두 목적격 주격 등의 조사를 취해서 주어 목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5)의 ㉦~㉪에서도 ‘술

마십, 너깅, 음, 감, 딴, 길음' 등은 조사를 취해서 뒤에 오는 술어에 대하여 주어 목적어 등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세째는 동음형태이라는 점이다. 어간에 '-(으)ㄴ'을 붙여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구조 동일한 음성형태이어서 형식상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상으로는 이들 양자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함께 공존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 즉 충돌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서로간의 異質性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이질성을 살펴 보면, 전성명사는 첫째 복합어가 될 수 있다.

노름터에 모히다 (漢淸 259C)

노름노리 하야 (번소 8 : 13)

다짐글칠 (招狀) (譯補 37)

우름쓰린 (月釋 1 : 27)

둘째 접사가 붙을 수 있다.

반겨름도돈니디물하니라 (번朴上 43)

술을우김질로도적하야가니 (太平 1 : 20)

세째 관형어가 선행될 수 있다.

열분 이르물 (龍 30)

물의 도쿠즘으란 (老下 15)

베째로 전성명사 '-(으)ㄴ'은 어느 특정의 말에만 붙을 수 있는 파생접미사이다. 모든 용언의 어간에 다 붙어서 명사를 만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특정의 용언어간에만 붙어서 그 용언을 명사화시켜 낱말을 만드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전성명사는 고정되어 버린 어휘명사라는 점에서 {+어휘성}의 자질을 특색으로 내세울 수 있다. 반면에 명사형은 첫째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두 기능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⁷⁾

(6) ㉠ 쇠어버이설기물경성으로써 하고 (東國新坤 2 : 40)

㉡ 되리님굶설규문 다츄매資賴훈디업스니 (杜重 3 : 66)

7) 허 응(1975 : 627).

5 嶺南語文學(第13輯)

㉠ 一切龍王 돌러 비느리오 몰爲하야 (月釋 10 : 91)

㉡ 天下 | 고로되오물期約지 못하리이다. (小兒 5)

에서 보면 ㉠은 쇠 아버이를 섬기다 ㉡은 되가 님굼을 섬기다 ㉢은 龍王 돌러 비를 느리다 ㉣은 天下 | 고로되다라는 문의 변형이다.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주어 목적어에 대한 서술어가 되고 있다. 둘째로 어간 다음에 다른 요소를 삽입시킬 수 있다.

(7) ㉠ 흙씨주기를넘어늘 (東國新坤 1 : 39)

㉡ 막음올위로한여디내옵시물수업시브락옵노이다 (明聖王后諺簡)

㉢ 반갈스오미아라타업스와호오덕 (仁顯王后諺簡)

㉣ 처음으로극진한시물머더 (捷解 1 : 5)

‘—(으)ㄴ’ 앞에 다른 문법요소(선어말어미)를 앞 세우고 있는데 ㉠은 ‘이’ ㉡은 읍, 시 ㉢은 ‘스오’ ㉣은 ‘시’를 각각 선행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명사형 ‘—(으)ㄴ’은 굴절어미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용언에 ‘—(으)ㄴ’은 올 수 있는 것이어서 파생접미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세째로 명사형 ‘—(으)ㄴ’은 문장을 명사문으로 쓰게 하는 명사화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8) ㉠ 네소내천어두미어렵다 (朴初上 : 74)

㉡ 큰형님너르샤미울하시이다(변老上 : 42)

㉢ 효조의어버이섬교몬겨으렌담게하고 (正俗 2)

㉠은 [네소내 천얼다]s ㉡은 [큰형님 니르시다]s ㉢은 [효조가어버이섬기다]s라는 문장을 각각 명사문으로 변형시킨 것인데 그것은 ‘—(으)ㄴ’의 적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곧 ‘—(으)ㄴ’은 용언 한 단어의 명사화가 아닌 그것을 술어로 하고 있는 문자체의 명사화문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개의 단어인 용언을 명사로 전성시킨 전성명사와는 명사화 전용범위가 다르다. 하나는 문장차원인데 다른 하나는 어휘차원이다.

이상으로 전성명사 ‘—(으)ㄴ’과 명사형 ‘—(으)ㄴ’의 특성을 살펴 보았거니와 정리해보면, 용언을 명사화 한다든가하는 동음형태로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전성명사는 파생명사로서의 어휘요소의 범주인 데 대해서 명사형은 굴절어미로서 문법요소의 범주이다. 또한 전성명사는 단어의 명사화, 그것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는데 대해서 명사형 ‘-(으)ㄴ’은 모든 용언에 다 가능하면서 문장을 명사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써 그 용법의 한계에도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본래에는 -(오/우)-의 삽입으로 구조상에 차이가 있었지만 ‘오/우-’가 소멸됨에 따라 동음형태관계에 놓이게 된 두 문법요소 즉 전성명사화결미사 ‘-(으)ㄴ’과 명사형 ‘-(으)ㄴ’은 어휘적 차원과 통사적 차원이라는 명사화기능의 범주상의 차이 때문에 어느 형태소가 완전소멸하는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명사형 ‘(으)ㄴ’의 내면적인 흐름에는 변화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로 명사형어미에 있어서 대단히 생산적이던 쓰임이 ‘-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우-’의 소멸로 전성명사 ‘(으)ㄴ’과 동음형태관계가 시작된 이후부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미 ‘-기’의 발달과정에 대해서 두편의 글에서 밝혔기⁸⁾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의 게시는 그 글로 미루기로 하거니와 16세기 후반에 ‘-오/우-’의 소멸과 함께 ‘-(으)ㄴ’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17세기이후에는 ‘-기’의 세력이 크게 확장된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다. 이것은 동음형태의 충돌과 구관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둘째로 현대국어에서 살펴 보더라도 동음충돌을 피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9) ㉠ 잠은 누워 잠은 좋아도 앉아 잠은 좋지 못하오.

㉡ 잠은 누워 자기는 좋아도 앉아 자기는 좋지 못하오.

(10) ㉢ 꽃이 필을 보고 고향을 생각한다.

㉣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고향을 생각한다.

(9)에서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글이지만 현대인은 ㉡을 즐겨쓴다. 그리고 (10)에서도 ㉢보다는 ㉣을 더욱 즐겨 쓰고 있다. 결국 ‘-(으)ㄴ’으로 쓰이던 뜻이 ‘-기’나 ‘것’등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이 현대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물론 동음충돌과 꼭 관련있다는 증거는 내세울 수 없지만 이러한 변화가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우-’의 소멸로 명사형의 구조가 전성어미와 동음형태가 이루어진 후부터 일기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명사형어미 ‘-(으)ㄴ’도 전성명사 ‘-(으)ㄴ’과의 동음

8) 이현규(1975, 1984).

형태관계가 되면서 변화를 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명사형어미 {—디}와 접속어미 {—디}

15세기 전성어미 가운데 명사화 전성을 시키는 어미는 ‘—(으)ㄷ’과 ‘—디’, ‘—기’가 있었다. 그런데 ‘디’는 그 세력이 약했을 뿐 아니라 17세기 무렵에 와서는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디’가 그렇지 소멸된 요인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동음형태충들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디’를 먼저 살펴 보면,

- (11) ㉠ 막을히벌면乞食하디어렵고 (釋 6 : 23)
 ㉡ 내겨저비란가겨가디어려물씨 (月釋 1 : 13)
 ㉢ 나리져물시나가디술하여하디니 (三綱·烈, 16)
 ㉣ 遊子노발드되디어렵다니러디말라 (南明上 29)
 ㉤ 惡世모숨노모미須彌의잡디어려움집홀속롬아니며 (法화 4 : 142)

(11)에서 보인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는 그 모문의 서술어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16세기에 와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렵다, 통다, 솟다’ 등의 용언과 함께 쓰이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 실제 예에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디’가 꼭 생산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쓰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 다음에 조사가 붙는 일은 없으며 바로 母文의 동사와 연결되는 특징도 있다. 그러면서도 母文의 동사에 대하여 체언의 구실은 충실히 하고 있으며 ‘—(으)ㄷ’과 같은 문장의 명사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16세기의 ‘디’를 보면

- (12) ㉠ 빈ㅈ床애어드운되가디어렵도다 (杜重 10 : 21)
 ㉡ 하늬프든느라물디어렵겨니와 (杜重 23 : 9)
 ㉢ 돌벽디붓그려 (恩重 15)
 ㉣ 自然이들니도해自然이보디도해 (陶山六曲板本 4)

17세기에도 회귀하지만 예가 보이는 곳도 있다.

- (13) 萬事에보디슬혼일이나시면엇딜고하니 (捷解 16 : 24)

그러나 16세기에 이미 ‘디’는 ‘기’로 교체되어 가고 있었다.

(14) 님기도호며려디도호며쁘디도호거시다虛空에서난거시라 (七大萬法 14)

(14)에서는 한 문장에서 ‘님기 먹디 뜨디’와 같이 ‘기, 디’가 混用되고 있는데 이 때 ‘기, 디’ 사이에 다른 차별적인 특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형태소의 混用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초간본과 중간본 사이에 동일한 문맥에서 ‘디 > 기’와 같은 交替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 (15) ㉠ 여러가짓성호과시물어름다문그릇안해들가두면장보디도호니라(번朴上5)
 ㉡ 여러가지鮮果를 水盤에줄가두면장보기도호니라 (朴仁上6)
- (16) ㉠ 이머리엇디이리잡디어려우노본디이러호니라 (번老上 45)
 ㉡ 이머리엇디이리잡기어려우노본디이러호니라 (老仁上 41)

(15) (16)의 ㉠과 ㉡은 동일문장의 초간본과 중간본의 관계이다. ㉠의 ‘보디, 잡디’는 ㉡에서 ‘보기, 잡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디 > 기’로 교체된 것을 알 수 있다. ‘기’는 15세기에는 본래 파생접미사로서 명사화하는 것이었으나 뒤에 오면서 굴절성을 획득하여 활용거미로 변천되면서 ‘디’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⁹⁾

‘디 > 기’의 용례도 있으나 이것은 구개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디’가 18세기까지 그 잔영이 남아 있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2)의 ㉢과 (13)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7) ㉠ 自然이듯기조희自然이보기조희 (詩歌朴氏本)
 自然이듯기조디自然이보기조희 (靑永洪氏本)
 ㉡ 自然이듯지조희自然이보지조희 (海歌一石本)
 自然이듯지조희自然이보지조희 (海歌周氏本)

(18) 萬事에보지슬혼일들이나이사면얼덜고호니 (捷解重 6 : 31)

이렇게 볼 때에 「-디」가 「-지」로 변이되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역시 「-기」로 모두 합류되었으므로 「-디」는 결국 16세기에서 「-기」로 교체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에는 「-기」로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8세기에 보이는 드문 자료들은 당시까지 「-디」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자료들이다.

이상으로 「-디」가 소실되는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제 주

9) 이현규(1984).

요한 관심은 이 ‘-디’의 소실이 동음형태충돌과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 보는 일이다.

명사형 ‘-디’는 접속어미의 연결법 ‘-디’와 동음형태이다. 이 두 동음형태의 충돌에서 명사형 ‘-디’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요소의 공통점과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공통되는 점을 찾아 보면

첫째는 동음형태이다. 전혀 구별이 안되는 꼭 같은 형태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고

둘째는 둘 다 어간에 붙는 어미이다.

(19) ㉠ 내저지바라가져가디어터볼씨 (月釋 1 : 13)

㉡ 먹올려걸면~~디~~乞食~~디~~어렵고 (釋 6 : 23)

(20) ㉠ 복수미브저본거실씨손소죽디물하야 (釋 6 : 5)

㉡ 人間에나아惡趣의受苦를저려貪欲을~~디~~즐기디아니하교 (釋 9 : 13)

(19)의 ㉠㉡에서 ‘가디, 乞食~~디~~’는 ‘가다, 乞食하다’의 어간에 ‘-디’가 붙은 꼴이요 (20)의 ㉠㉡에서도 ‘죽디, 즐기디’는 ‘죽다, 즐기다’의 어간에 ‘-디’가 붙은 꼴로서 양자는 꼭 같은 위치에서 나타난다.

세째는 주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어에 대하여 서술어가 된다.

(21) ㉠ 慢心壇上이有頂의누르디어려움곤홀씨름아닐씨라 (법화 4 : 142)

㉡ 遊子는~~디~~발드되디어렵다니~~디~~말라 (南明上 29)

(22) ㉠ 耶輸] 잠선도듣디아니~~디~~실씨 (釋 6 : 6)

㉡ 須達이~~디~~뉘웃디말라내아랫네버디라니 (釋 6 : 19)

(21)은 ㉠ 慢心壇上이 누르다 ㉡ 遊子는 발드되다 라는 기본문을 명사화한 것이요 (22)는 ㉠ 耶輸] 듣다, ㉡ 須達이 뉘웃다 라는 기본문에 대한 변형이다.

따라서 사실상 둘은 그 분포나 문의 내포문에서의 통사적 기능도 동일한 것이다. 두 형태소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⁰⁾

여기에 대해서 두 요소간에 차이를 드러내 주는 것 즉 동음형태충돌을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10) 송석중(1974),
열선모(1975).

접속어미 ‘-디’는 다음에 반드시 금지나 부정의 보조용언이 연결되는데, 그래서 동명사 ‘-디’는 그 다음에 주로 ‘어렵다’라는 용언이 온다.

- (23) ㉠ 一切有情이나와 다르디 아니케 호리라 (釋九 : 4)
 ㉡ 부러니 득산經엿기 폰뜨돌아디물호려 (釋九 : 13)
 ㉢ 議論호디마름디어다 (楞 6 : 42)
- (24) ㉣ ㅁ장보디도호니라 (好生好看) (번朴上 5)
 ㉤ 더위잡디어컬도다 (金三 2 : 48)
 ㉥ 놀뵈디부트려 (愿重 15)

(23) (2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디’ 다음에 연결되는 용언의 제한으로 양자는 서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 구별은 대단히 불안한 안전판이다. 왜냐하면, ‘아니하다 못하다 말라’ 등의 부정이나 ‘어렵다’ 통다 붓그렵다’ 등 용언과의 차이에서 ‘-디’를 구분해 줄 안전한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형 (21)의 ㉠과같은 예문에서 보면

- ㉠ 遊子노발드되디어렵다니르디말라
 ㉡ 遊子노발드되디못한다니르디말라

㉠은 동명사 ‘-디’ ㉡은 접속어미 ‘-디’이다. ㉠㉡의 ‘-디’를 분간해 내기란 쉽지 않으며 대부분의 화자들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가장 좋은 장치는 문맥(context)인데, 문맥상에서도 혼란의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명사형 ‘-디’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취약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왜 명사형 ‘-디’가 하필 소멸되어야 하는가는 문맥은 동음형태충돌의 일반원리에서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사용빈도가 큰 어휘들보다 빈도가 적은 어휘들은 많은 형태상의 변동 을 가져온다¹¹⁾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명사형 ‘-디’는 접속어미 ‘-디’와 비교해 보면 경쟁상대가 되지 않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명사형어미 ‘-디’는 접속어미 ‘-디’와의 동음형태충돌에 따라 그 세력과 기능을 ‘-기’에 넘겨주고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4. 종결어미 서술형 {-ㄴ다}와 의문형 {-ㄴ다}

다음으로 현대국어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다’ 물음법의 쇠퇴현

11) 최태영(1972).

상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필자는 물음법의 체계를 {+의문사}구조-설명문은, {-의문사}구조-관정물음으로 양분하고 그 속에 각각 세가지의 물음법으로 분류하였다.¹²⁾ ‘다’ 물음법이란 ‘ㄴ다, 논다, 르다’의 어미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물음법은 직접적 물음이며, 높임법의 물음이 아니다. 2인칭 ‘너’와 호응되는 물음이다. 이 ‘다’ 물음법의 변천이 동음형태충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15세기의 ‘다’ 물음법의 체계를 보면,

{+의문사}구조

(25) ㉠ 네 바리 로 어 되 가 어 든 다 (月釋 7 : 8)

㉡ 놀 위 하 야 가 져 간 다 (月釋 2 : 13)

㉢ 네... 엇 데 게 올 어 法 을 아 니 듣 논 다 (釋 6 : 11)

㉣ 네 엇 던 혜 므 르 나 탈 뎌 게 흥 다 (月釋 21 : 56)

㉤ 어 느 제 太夫人^스堂 우 희 아 숨 들 호 되 흥 다 (杜初 8 : 20)

㉠㉡ ‘어든다, 간다’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물음으로 ‘ㄴ다’와 관계되며, ㉢ ‘듣는다’는 현재의 물음으로 ‘ㄴ는다’와 관계 있으며, ㉣㉤의 ‘흥다, 되흥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물음이니 ‘ㄴ다’에 의해서 구별된다. 그리고 상대 ‘네’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물음이며, 상대는 ‘네’이므로, 높은이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에서는 다 ‘어되, 놀, 엇데, 엇던, 어느’와 같은 의문사가 수반되므로, 청자는 설명(진술)의 형식을 통해 대답을 해야 하는 물음법 곧 {+의문사} 구조가 된다.

{-의문사}구조

(26) ㉠ 究 羅 蒂 여 네 命 終 흥 다 (月釋 9 : 36)

㉡ 네 信 흥 논 다 아 니 흥 논 다 (釋 9 : 26)

㉢ 네 能 히 내 게 플 다 문 흥 다 (圓下三之一 88)

이 물음법은 의문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제시한 제한된 사실의 진위가부를 묻거나 제시한 둘 이상의 사실에 대하여 선택을 요구하는 형식의 물음이다. 따라서 대답하는 이는 간단한 판단(선택)형식으로 대답이 가능하다. 다른 사항은 역시 {+의문사}구조의 ‘다’ 물음법과 같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다’ 물음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2) 이현규(1978).

		+의문사	-의문사
과	거	ㄴ다	ㄴ다
현	재	논다	논다
미	래	르다	르다

다음으로 16세기의 ‘다’ 물음법 체계를 보면,

{+의문사}구조

(27) ㉠ 네 언제 王京의셔 떠난다 (번老上 17)

㉡ 랑동하 네 어되셔 산논다 (번朴上 11)

㉢ 네 석슬 언메나 줄다 (번朴上 11)

‘다’ 물음법의 시제체계에서 ‘ㄴ다, 논다, 르다’의 대립은 이 때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과거시제에서 새로운 형태가 출현한다. (㉠)은 개경에서 떠난 상인을 보고 묻는 물음이다.

네 언제 王京의셔 떠난다 내 이질초 흥륜날 王京의셔 떠난노라(번老上17)

떠나다+ㄴ다(과거물음)→떠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 이외에 ‘어드메 넘거 갓논다(번朴上 49)’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을 발견할 수 있다.

가^ㅁ논다+(앗+논다)→갓논다.

이것은 분명히 ‘ㄴ다’와는 다른 ‘앗/엇’을 ‘논다(현재물음)’에 선행시켜 과거 물음을 만들고 있다. ‘다’ 물음법의 시제표시체계에 있어서 과거물음에 대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의문사}구조

(28) ㉠ 두어날 그노를 보디 묻히리로다 네 본다 (번朴上 33)

㉡ 이 네 막슴도로 빅호논다 (번老上 5)

㉢ 네 출져 내 어미를 효양홀다 (번小 6:50)

{-의문사}구조에서도 ‘ㄴ다, 논다, 르다’체계는 그대로 있으나, 역시 변이형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9) ㉠ 詩를 學하얏논다 (논어 4:27)

㉡ 네 사롬을 어던논다 (번小 4:41)

㊸ 禮를 빅환는다 (번小 4:5)

역시 ‘ㄴ다’에 해당하는 시제표시를 ‘앗/엇+는다’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요약하면,

		+(의문사)	-(의문사)
과거	거	ㄴ다, 앓/엇-는다	ㄴ다, 앓/엇+는다
현재	재	는다	는다
미래	래	르다	르다

와 같이 과거시제표시에 다른 형태가 생겨난 것이다.

16세기에 와서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대해서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왜 이 시기에 그리고 하필이면 과거표시 ‘ㄴ다’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변화형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관찰하다 보면, 16세기에 와서 서술종결어미 현실법 ‘ㄴ다’형에 변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ㄴ다’ > ‘는다’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ㅎ는다 > 한다, 가는다 > 간다’와 같은 형태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 조석나하야 又 부모의 은혜를 안다 ㅎ느니라 (번上 58)

㉡ 君子는 黨티 아니한다 호니 (논어 2:24)

㉢ 가티어이 한다 니르느노 (번小 10:4)

㉣ 브리한 世間을 산다 ㅎ시며 (龜上 50)

㉤ 義를 아디 묻는다 ㅎ노니 (孟子 13:15)

(30)의 ㉠~㉤은 종결어미 서술형 ‘ㄴ다’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예들은 내포문의 종결어미에 한해서이지만 이러한 끝은 후대로 오면서 더욱 확대되기에 이른다. 결국 종결어미 서술형(현재) ‘ㄴ다’와 종결어미 의문형(과거) ‘ㄴ다’가 동음형태관계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종결어미로서 문장의 같은 위치에서 분포되는 동음형태가 문맥상의 어떤 안전장치로서도 충돌을 해소할 수는 없을것이 자명한 것이다. 다음 17, 8세기의 물음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17, 8세기의 물음법체계

{+(의문사)구조의 물음법

- (31) ㉠ 아디못게라엇디돌아난다 (朴언上 56)
 ㉡ 베므슬貨物을가져온다 (老언下 4)
 ㉢ 네어더가보내고도라온다 (朴언下 39)
 ㉣ 비셔을므슬일로가논다 (몽老 2)
 ㉤ 형아네언제起身홀다 (朴언上 9)
- (32) ㉦ 집은어이하야야되엿논다 (孤山遺稿, 별 54 : 14)
 ㉧ 이호무리사툼이므슬일왓논다 (捷蒙 4)

이 시기에 와서 {+의문사}구조의 ‘다’물음법은 (31) ㉠~㉤에서 처럼 예가 보이기는 하나 그 예가 아주 줄어들었으며 (32)에서 처럼 ‘ㄴ다’형은 ‘앗/엇+논다’구조로 교체되고 있음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물음법을 보이고 있는 자료들이 모두 16세기경에 또는 그 이전에 초간본을 내었던 문헌들이며 이 때에 처음 나온 문헌, 즉 예를 들면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71) 배평광기언해, 그리고 聖教諺簡文 등에서는 전혀 ‘다’물음법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주로 重刊本 중국어 몽고어학습서의 언해에 많이 쓰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시기의 口語에서는 벌써 사라진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의문사}구조의 물음법

- (33) ㉠ 베다나올제일즙보더못홀다 (朴언下 41)
 ㉡ 베任意로빅혼다네父母ㅣ널로빅호라하드나 (蒙老 1 : 8)
 ㉢ 네더의속을아논다 (朴언下 40)
 ㉣ 온갖글을네다能히請호논다 (捷蒙 3)
 ㉤ 너를호냥은을줄쳐시니홀다 (朴언下 26)
 ㉥ 우리를숨의나성각홀다 (仁宣王后諺簡)

(33)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때에도 일부 한정된 문헌에서 ‘ㄴ다, 논다, ㄹ다’물음법체계가 유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 이 당시 이 물음법이 완전하게 존재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문헌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그 문헌들의 성격이 보수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지되어 있는 국면보다 변화가 일어난 형세에 더욱 비중을 크게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34) ㉦ 비황호를다판다못호엿논다 (老언 下 59)

㉠ 雲長이 니로되네 분명이 관을지 내어 보내지 아니 렷는다 (三總 2 : 26)

(34)의 ㉠에서는 ‘준다’와 ‘못 하엿는다’가 다같이 과거물음으로써 함께 쓰이고 있는데 ‘준다’의 ‘는다’가 ‘앗/엇+는다’구조로 전환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16세기에 이미 서술형 종결어미 ‘는다’의 출현으로 ‘다’물음법에 변동이 일기 시작한다는 언질을 남긴 바 있지만 다음 자료들은 ‘다’물음법이 어떻게 교체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35) ㉡ 前後에언메나오래머므는다 (번초上 15)

㉢ 前後에언메나오래머물러노 (초언上 13)

(36) ㉣ 엇디길조차서더러운말노희피티아니 하는다 (번초上 16)

㉤ 엇디길조차서더러운말을희피티아니 하노노 (초언上 15)

(35), (36)에서 ㉣은 초간본의 것으로 다 같이 ‘머므는다, 아니 하는다’가 되어 있는데 ‘다’물음법으로 표현된 곳이다. 그런데 (11) (12)의 ㉡에서 보이는 바는 꼭 같은 그 내용 그 문맥인데 ‘머물러노, 아니 하노노’라고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16세기의 중간본에서는 ‘고’물음법의 ‘노’형으로 교체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16세기의 ‘다’물음법이 17세기에 와서 어느 정도 그 모습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고 다른 형태로 교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물음법 가운데서도 {-의문사}구조의 물음 ‘다’가 먼저 사라지게 되는 점은 더욱 주의를 끌게 된다. 다음은 「계축일기」에서 찾아 본 용례들이다.

(37) ㉥ 네나라홀빅만하나엇디날을저버리는다

㉦ 나논엇디간곳도아니니르는다

㉧ 어이아니며는다

㉨ 므스일노우는다못거늘발알푼운다하니

㉩ 너뉘곳이라이리형실업시구는다

(37)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의문사}구조들만 보이는 예들이고 {-의문사}구조의 ‘다’물음법이 보이지 않는다. 의문사가 없을 때 ‘는다’물음법은 서술종지 ‘는다’와 완전 일치하는 동형구조가 되어 버린다. 같은 「계축일기」에서 보면

(38) ㉪ 하인은하덕웃던이못쓰시게그리하다하고

- ㉠ 그사름이그런뜻을먹을니업술더높이되어더리니룬다하더라
- ㉡ 물이나셔드리게하다가즈진하시게하려하다하니

(38)의 용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서술종지 ‘ㄴ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서술형과 ‘ㄴ다’물음법이 共存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동형어충돌을 막을 만한 안전관(safeguard)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37)에서 보이는 ‘ㄴ다’물음법은 {+의문사}구조이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 ‘어디, 무엇, 어찌, 왜’ 등의 의문사가 있을 때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의 ‘ㄴ다’는 의문형에 틀림없는 것으로서 종결어미서술형과는 자동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의문사]일 때는 안전장치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즉 동형어충돌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할만한 안전장치를 가지지 못한 것이 [-의문사]구조의 물음법이 가진 약점이다.

- (39) 그유미어엇비껴여티양드려다가보고, 엇디못온다북이적어우리게못온다하더니
(계축일곡)

(39)에서, 앞에 나오는 ‘못온다’는 물음끝이요, 뒤에 오는 ‘못온다’는 서술형이지만 착오없이 어울려 쓰이는 것은 의문형 어미 ‘ㄴ다’가 앞에 ‘엇디’라는 의문사와 호응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형어충돌의 혼란을 막아주는 안전관(safeguard) 역할을 ‘엇디’라는 의문사가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의문사가 없는 [-의문사]구조는 그대로 종결어미 서술형과 형태상으로 일치하게 되는 셈이니 불리할 수 밖에 없다.

現在時制 形態로서의 ‘—ㄴ다/—는다’의 成立에 대해서 ‘네아디^ㅇ못^ㅇ하^ㅇ다’ (朴諺 31a)라는 例文에서 이미 속종대에 現在形 表示가 現代語的 形態로 變化된 것이 확인된다고 말하고

- (40) ㉠ 모습연고로오더아니하다 (朴언上 58)
 ㉡ 예언제온다 (朴언上 46)
 ㉢ 네오놀엇디^ㅇ學에일즐가디아니^ㅇ하^ㅇ엿^ㅇ는다 (朴언上 44)
 ㉣ 베이제 모습글을빅하는다 (朴언上 44)
- (41) ㉠ 조식을걸려야보야흐로父母은혜물안다하니라 (朴언上 51)
 ㉡ 늙흔바독은첫관을진다하^ㅇ니라 (朴언上 23)
 ㉢ 사람이가난하면그져다랏고깃지면거죽말니^ㅇ긋기잘하다하^ㅇ니라 (朴언上32)
 ㉣ 물이夜草를엇디^ㅇ못^ㅇ하^ㅇ면술지디^ㅇ못^ㅇ하^ㅇ다하^ㅇ니라 (朴언上 21)

(40)은 의문문 (41)은 종결어미의 서술형이다. 결국 同一한 外形을 놓고 文法機能을 달리하는 두 개의 形態素가 角逐을 버리다가 疑問形쪽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런 角逐이 文末에서 進行 또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 朴通事諺解의 時期였던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또 ‘ㄴ다’의 발생에 대해서 ‘ㄴ다>ㄴ다’의 변화는 먼저 被包有文의 文末에서 成就되었던 것이 후에 세력을 확장하여 絶對文末에 미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하였으며¹³⁾ 또는 서술형 ‘ㅎㄴ다’가 ‘ㅎ다’로 변천된 것은 안진월 안에서는 때때김법의 표시가 필요없으므로 노력 경계의 원리에 따라 변천된 것으로¹⁴⁾ 보는 견해가 있거니와 어쨌든 17세기에 들어와서 서술형어미 ‘ㄴ다’의 세력확대와 의문형어미 ‘ㄴ다’의 소멸과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곧 바꾸어 말하면 동음형태의 충돌이었다. 이것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첫째는 종결어미라는 동일한 문법범주 안에 있는 동일한 형태의 두 문법요소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지지 못하였다. [+의문사]구조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 한해서 쓰이는 의문법은 불완전한 것이므로 결국 ‘다’물음법은 서서히 다 사라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다’물음법 쇠퇴에 따른 기능상의 공백은 동일한 통사구조 또는 기능범주인 다른 물음법 ‘노, 냐’ 등에 넘겨 주면서 사라져 가게 된 것이다.¹⁵⁾

5. 결 론

위에서 논급해 온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명사형어미{-(으)ㄴ다}와 전성명사화접미사{-(으)ㄴ다}, 이 두 형태소간에는 동음형태관계이지만 전자는 모든 용언의 어간에 두루 붙을 수 있는 굴절성이 있는데 대해서 후자는 제한된 특정의 어위에 한해서 전성명사를 만드는 파생접사로서 어휘성의 자질이 있으며, 또 전자는 문(文)을 명사문으로 변형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후자는 단어를 명사로 전성시키는 것이므로 기능상의 한계가 서로 다른 것이어서 충돌이 없다고 생각할

13) 김완진(1977).

14) 허웅(1975).

15) 이현규(1978).

수도 있으나, 크게 묶어서 보면,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단어 차원이든 문장 차원이든 명사화시킨다는 점에서 공동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고 형태가 전혀 일치하는 동음이라는 점에서 간접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오/우-의 소멸에 따라 양자가 동음형태관계가 이루어진 후부터 ‘명사형{- (으)ㄷ}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해서 후대로 오면서 계속적으로 {-기}가 더욱 생산적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역사적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현대국어에서도 두 형태소가 동일문장에서 체언과 서술어로 쓰이었을 때 화자들은 두 형태와 동시 출현되는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 (으)ㄷ}대신에 {-기}나 {짓}으로 교체시키는 현상을 통해서도 두 형태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문법요소간에 동음형태의 관계가 되었을 때 문법적 범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점에 있어서 공동으로 묶어질 수 있는 즉, 큰 범주로 묶어질 수 있을 때는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명사형어미{-디}와 접속어미{-디}는 모두 어간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활용어미이라는 점에서 동일 문법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문장에서 분포되는 위치 또한 동일한 곳이어서 문맥의 차원에서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세력이 약한 명사형어미{-디}가 소멸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디}는 {-기}에 그 기능을 넘겨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종결어미 의문형 {-다}구조의 물음법은 16세기 중기이후에 나타나는 종결어미서술형{-ㄴ다}와 동음형태관계에 놓이게 된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사}구조에 나타나는 의문형{-ㄴ다}는 서술형{-ㄴ다}와의 충돌에서 밀려나면서 다른 의문형에 그 기능을 맡기고 소멸하게 되었다.

(4) 문법요소들도 동음형태관계에 놓이게 될 때에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며 그 상호 역학관계에 따라 형태소의 변화 내지 소멸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언어변화가 동음형태의 충돌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더욱 확연히 증명하는 데는 난점이 있으며, 본고에서도 그러한 난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밝혀 둔다.

참 고 문 헌

- 權在善(1972), 國語의 同格語衝突에 關한 考察, 國語國文學研究十四輯〈嶺大國語國文學會〉
- 金完鎭(1975), 翻譯 朴通事와 朴通事諺解의 比較研究, 東洋學 5輯〈檀國大〉
- 金宗澤(1971), 國語意味論〈螢雪出版社〉
- 朴榮培(1981), 英語史序說〈乙酉文化社〉번역(Charles L. Barber, The Story of Language)
- 宋錫重(1974), 동의성, 國語學 2輯〈國語學會〉
- 염선모(1975), 배달말의 기음월에 대하여 배달말 1집〈경상대〉
- 李基文(1961), 國語史概說〈塔出版社〉
- 李崇寧(1976), 15世紀國語의 冠形詞形/一논/系語尾에 대하여, 震壇學報 41號〈震壇學會〉
- 李勝明(1970), 同音衝突과 safety-measures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8輯〈國語國文學會〉
- 이현규(1975), 名詞形語尾「-(으)ㄴ, -기」의 史的考察, 論文集 5輯〈大邱大〉
- _____ (1978), 물음법의 변천, 한글 162호〈한글학회〉
- _____ (1984), 명사형어미「-기」의 변화〈牧泉俞昌均博士還甲紀念論文集〉
- 崔泰榮(1971), 國語同音語衝突回避에 關한 研究(一), 論文集 14輯〈全北大〉
- _____ (1972), 同音語衝突原理考, 국어국문학 58~60호〈國語國文學會〉
- 허응(1959), 삼십모음제고, 한글 125호〈한글학회〉
- _____ (1963), 또다시 人稱·對象活用語尾에 대하여, 語文學 10輯〈韓國語文學會〉
- _____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_____ (1977), 국어때때김의 변천, 世林韓國學論叢 1輯
- Bloomfield, Leonard(1977), Language, George Allen & Unwin, LTD. New York.
- Jespersen, Otto (1968), Language,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 Ullmann, Stephen (1967), Semantics, Oxford Basil Well.